

방탄소년단 노래에 나타난 성장의 의미

– 자기계발적 주체의 성공에서 탈주체적 생성으로

윤지영*

【 차 례 】

- I. 서론
- II. 입문의 시련과 자기계발적 자유의지를 통한 성공
- III. 사랑의 궁지와 ‘Love Myself’를 통한 소명의 인식
- IV. ‘영혼의 지도’ 그리기와 ‘영웅-되기’
- V. 결론

국문초록

힙합 아이들을 표방하며 출발한 방탄소년단이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전형적인 자기계발식 성공담으로 소비되곤 한다. 그러나 발표 순서대로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를 읽는다면, 이들의 성장은 훨씬 풍부한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즉, 자기계발식 성공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셉 캠벨의 원질신화의 3단 구조를 읽어낼 수는 있지만, 이들의 변모 과정은 자유의지에 의한 주체적 선택과 부단한 노력으로 사회적인 성공에 도달하는 자기계발식 서사로만 읽을 수는 없다. 그보다는 그들의 나이, 그들이 대면한 상황에 반응하며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 주체에서 비개인적인 우주적 힘을 대표하는 강도-특이성으로 ‘되어가는’ 생성에 가깝다. 이를테면, 데뷔 초에 발표한 학교 3부작은 대중음악계로 대표되는 기성 사회에 진입하는 과업에 대해 노래했다면, 무사히 케이팝 세계에 진입한 이후에는 기대보다 훨씬 높이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찾아온 정체성과 내면의 혼란을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한 천착을 통해 이해하는 과업을 노래한다. “Map of the Soul” 연작은 이러한 자신들의 행보를 “영혼의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으로 정립하면서 자신들의 소명을 재확인한다. 그것은

* 단독저자,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windnamu@deu.ac.kr

‘노래-강도’로서 또 다른 특이성들과 접속하며, 부단히 탈주하는 선을 그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탈주선으로 방탄소년단의 성장 서사를 이해하는 일은 그들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통해 개인을 규율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공 담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열쇠어 : 방탄소년단, 성장담, 자기계발 담론, 원질신화, 조셉 캠벨, 강도, 특이성, 영웅

I. 서론

세계적인 아티스트이자 시대의 아이콘이 된 방탄소년단은 2022년, 멤버들의 순차적인 입대를 앞두고 그룹 활동의 잠정적 종단을 선언하며 그간의 활동을 하나의 챕터로 마무리한다. 2013년부터 이어진 10년간의 활동 과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성장담으로 여겨진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이 성장담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기계발 담론으로 쉽게 환원된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들의 노래 가사는 이들의 성장을 인기나 사회적 지위의 상승, 혹은 경제적 부와 같은 ‘세속적 성공’으로 환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의 행보가 단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직선을 그리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의 궤적을 노력과 열정으로 세계 정상에 오른 자기계발식의 성장담으로 서사화하는 것은 그들의 행보가 일정 부분 이러한 사실은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서사의 뼈대를 이루는 성장담의 세속화 때문이기도 하다.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가 끊임없는 자기 경영을 통해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기계발의 신화를 방탄소년단의 성공 사례에서 읽어내는 것이다.

세계의 영웅 신화에서 성장담의 원형, 즉 원질신화(monomyth)를 도출한 조셉 캠벨은 주체의 성장 과정을 분리와 입문, 그리고 귀환의 3단계로 정립한다. 이 3단계 구조는 서사의 보편적인 구조로 간주되는데, 조셉 캠벨 그 자신이 주술사의 주문이나 요정 이야기는 물론 노자의 경구집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법에서도 이 원질신화가 발견된다고 말할 바

있다.¹⁾ 뿐만 아니라 근대의 교양 소설이나 대중적인 영웅물,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 서사도 미숙한 존재가 익숙하고 안정적인 공동체를 떠나, 낯선 세계에서 시련을 겪고, 질적 변환을 일으켜 귀환하는 구조를 갖는다. 시대와 문화, 그리고 장르를 불문하고 원질신화의 3단 구조가 널리 사용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고유한 문제와 근원적인 욕망을 담지하고 또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이유 중 하나로 이들의 성장 서사를 꼽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즉, 노래나 퍼포먼스의 완성도, 혹은 마케팅 전략의 성공에 더해 이들의 행보가 전형적인 성장담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얻게 한 요인이라는 것이다.²⁾

주목해야 할 것은 조셉 캠벨이 말한 신화적 영웅의 성장담을 한 개인의 욕망 실현이나 사회적 성공, 혹은 자아 탐색을 완수하는 이야기로 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조셉 캠벨이 신화적 영웅의 모험담을 초월적인 신-영웅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조셉 캠벨은 영웅 신화는 한 개인이 “완전하게 되되, 특이하지 않은 우주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신화는 “다함 없는 우주 에너지가 인류의 문화로 발로하는 통로”이며, 신화적 영웅의 모험담은 모든 인간이 “자연 만물과 더불어 우주적 전체를 이루는 근본적인 에너지와 연결”된 존재임을 드러내고 그 에너지를 회복하도록 기여한다.³⁾ 즉, 인간이 고유한 개성과 자아를 가진 존재라기 보다는 자연의 일부로서 보편성을 갖춘 존재임을 드러내는 문화적 산물로 영웅 신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정된 자아나 주체와 같은 개념으로 수렴될 수 없는 강도, 즉

1) 조셉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윤기 역, 민음사, 1999, 13쪽.

2) 이지행은 방탄 팬덤의 확장 요인의 핵심적인 것으로 “성장하는 존재로서의 방탄에 대한 공감대”를 들고 있으며(이지행, 『BTS와 아미컬쳐』,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135-147쪽), 홍석경 역시 BTS의 행보를 영웅담으로 파악한다.(홍석경, 『BTS 길 위에서』, 어크로스, 2020, 26-29쪽)

3) 조셉 캠벨, 위의 책, 14-33쪽.

특이성(singularité)으로 인간을 파악하는 들뢰즈의 사유와 접점을 갖는다.⁴⁾ 강도-특이성으로서의 개체는 인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속성이기도 하다. 강도-특이성으로서의 개체들은 미규정적 ‘조성판(=구성판)’ 위에서 어떤 중심도 없이 매번 새로운 관계를 생성해 간다.⁵⁾ 이 흐름과 생성은 위계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리즘적 확장을 해나가며, 어떤 대상과 접촉하느냐에 따라 매번 새로운 되기가 발생한다. 조셉 캠벨이 신화적 영웅을 “이루어진 사상(事象)의 옹호자가 아니라 이루어지는 사상의 옹호자”로, “영웅의 행적을 순간의 결정화(結晶化)에 대한 끊임없는 파괴 행위”⁶⁾로, 영웅의 성장을 “다양한 얼굴이 사실은 하나임을 알고, 또 남들에게 알리”는 것⁷⁾이라고 본 것은 ‘규정’할 수 없는 것과의 접촉을 통해 동일성에 균열을 내면서 탈주선을 그리는 특이성들의 ‘생성’ 개념과 공명한다.⁸⁾

본고는 조셉 캠벨의 원질신화와 들뢰즈의 강도 및 생성의 개념에 기대 방탄소년단이 데뷔 후 10년간 발표한 곡들의 가사에서 이들이 성취한 성장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성장이 함의하는 바를 확장·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주제의 변화에 따라 ① 데뷔 후 가요계에 안착하기까지의 시기(2013~2015), ② 세계 무대로 성공을 확장하던 시기(2016~2018), 그리고, ③ 세계 최정상에 오른 후 팬데믹을 겪게 되기까지의 시기(2019~2022)의 노래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노래에 표현된 과업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 세 단계가 출발-입문-귀환로 구성된 원질신화의 3단계와 도식적으로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과 순서는 신화적 영웅의 모험이 갖는 구조와 상동성을 갖는다. 또한 가사의 내용

4) 제임스 윌리엄스,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해설과 비판』, 신지영 역, 라움, 2010, 106쪽.

5) 존 라이크만, 『들뢰즈 커넥션』, 김재인 역, 현실문화, 2005, 104쪽.

6) 조셉 캠벨, 위의 책, 422쪽.

7) 위의 책, 55쪽.

8) 존 라이크만, 위의 책, 108~109쪽.

을 방탄소년단의 실제 경험에 대한 표현으로 읽는 것도 위험하다. 물론 데뷔 앨범의 첫 곡을 “십 대, 이십 대를 대신해 쉽게 우리 애길”하겠다는 선언으로 시작한 것이 시사하듯(「Intro: 2 Cool 4 Skool」), 방탄소년단은 당시의 다른 아이돌 가수와 달리 직접 가사와 곡 작업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노래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 방식은 이후에도 더욱 확장된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노래 가사에서 방탄소년단의 경험을 읽어내는 일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 세계에서 그들이 어떤 활동과 선택을 했는가와 노래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유념해야 하다. 즉,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참조하겠지만, 본고의 분석은 방탄소년단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노래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함축적 저자로서의 방탄소년단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방탄소년단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필요하며 의의가 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으로 트랜스 미디어 전략, SNS를 통한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같은 마케팅 전략 등이 지적되고, 그 이후 케이팝계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적극 도입하지만, 방탄소년단이 거둔 성취는 쉽게 재현되지 않는다. 이때의 성취란 비단 팬덤의 거대한 규모와 독보적인 인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덤 아미(ARMY)는 팬덤의 통념에 맞게 상품화된 아이돌에 열광하며 소비를 아끼지 않는 십 대 소녀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성별과 인종, 국경은 물론 연령과 사회적 계층의 경계를 넘어 우리 시대의 소수자와 주변인에 대한 문화적·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⁹⁾ 그리고 아미들은 이러한 실천의 준거를 방탄소년단의 성장 서사와 그들의 노래 가사에서 찾는다. 그렇다면 이들의 실천과 실천의 동기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인데,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기계발식 성공담은 연

9) 이지행, 앞의 책; 홍석경, 앞의 책; 이지영, 『BTS 예술혁명: 방탄소년단과 들뢰즈가 만나다』, 파레시아, 2020 등 참조.

대나 공존과는 거리가 먼 경쟁 및 각자도생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노래 가사에서 읽어낼 수 있는 성장 서사를 자기계발식의 성공담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보여주는 수행에 정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식의 성공과 성장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공과 성장을 모색하는 일이 될 것이다.

II. 입문의 시련과 자기계발적 자유의지를 통한 성공

방탄소년단은 2013년도 첫 번째 앨범인 『2 Cool 4 Skool』로 가요계에 데뷔한다. 15~19살의 나이로 고향을 떠난 일곱 명의 청소년들이 아이돌 산업의 중심인 서울 강남의 비좁은 숙소에서 함께 기숙하며 멤버에 따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에 걸친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거친 후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 대중음악계에 무사히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화양연화 pt.1』으로 국내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는 2015년 경이다. 연습생 시절부터 이 기간까지 방탄소년단이 보낸 고군분투의 시간은¹⁰⁾ 신화적 영웅의 모험담 가운데 미숙한 주체가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에 상응한다.

영웅이 일상적인 공간을 떠나는 계기를 조셉 캠벨은 전령관의 전언이

10) 이 시기 방탄소년단이 외적인 성공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DARK&WILD』 앨범으로 2015년도 골든 디스크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화양연화 Pt.1』는 대표곡 <I need u>로 첫 가요프로그램 1위를 수상하였으며, 2016년에는 해당 앨범으로 골든 디스크 본상을,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는 Top10에 오른다. 『화양연화 Young Forever』는 같은 해 멜론 뮤직어워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으며,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유수의 음악상을 수상하며 기성 가요계에 무사히 안착한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서서히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 2015년도에는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최고의 K-POP 앨범 4위, 노래 부문 2015 베스트 K-POP 앨범, 2015 베스트 K-POP 노래 20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으며, 『화양연화 pt.2』와 이 앨범의 타이틀곡 <RUN>으로 각각 4위와 3위에 선정된다.(멀티 미디어부, 「방탄소년단 화양연화 pt.2 빌보드 앨범과 노래 부문 동시에 이름 올려」, 『부산일보』, 2016년 1월 6일)

나 인식하지 못한 실수, 우연한 만남, 꿈속의 계시 등, ‘운명’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다.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은 이전에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던 사물이 이제는 무가치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에 접어들어 의미를 잃고, 따라서 이 소명을 거부하는 것은 타성이나 힘에 겨운 일, 혹은 문화의 장벽에 굴복하여 의미심장한 긍정적 행동력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¹¹⁾ 방탄소년단의 초기 노래는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는 자의 포부가 주된 내용을 이루며, 그 출발의 계기는 다음과 같이 운명적이고도, 우연적인 조우에 의한 것으로 제시된다.

It was a new world / 평소에 글이나 시나 끄적이던 내게/ 심청이마냥 급
다가와 / 내가 못 뜨던 새 눈을 뜨게 했네 // (...) // 힙합은 찾아 왔어, 살며시
/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 자연스럽게 내 삶에 / 스며들었지 //(…)// 지금
은/ 랩 댄스 교집합/ Yeah ma role model/ 다듀 버벌 with 에픽 하이/ 서툰 날
이력서 써 무명 깨 무델 fly/ 아무것도 모른 날 일으켰지/ 매일 내 맘을 울린
Artist Ring/ 몸으로 표현만 했었던/ 비기와 투박 and 나스

- 「힙합성애자」에서

위의 노래에서 이들은 우연히 힙합을 듣고 아무 이유 없이 끌리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국내외 최고의 힙합 뮤지션들은 이들로 하여금 “영웅 지망생 래퍼”, “차세대 히어로”를 꿈꾸며 일상적 삶의 세계를 떠나게 만드는 전령관이다. 이들이 떠난 일상적인 공간은 「팔도강산」과 「Ma city」, 「어디에서 왔는지」에서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의 표현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일산,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리적으로나 문화 권력적으로나 변방인 고향에 대한 자부심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새로운 세계의 주변임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과업이 세계의 변두리에서 새로운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것임을 두드러지게 한다. 데뷔 이후 발표한 학교 3부

11) 조셉 캠벨, 앞의 책, 69~80쪽.

작¹²⁾과 화양연화 3부작¹³⁾은 이 세계로의 진입을 위해 치르는 도전과 시련의 기록으로서, 「We On」, 「If I Ruled the World」, 「BTS Cypher pt.1」, 「진격에 방탄」, 「Jump」 등을 통해 “차세대 히어로”의 포부와 다짐을 선언하며 이 과업을 시작한다.

이들의 과업은 학교와 대중음악계라는 두 개의 장으로 구체화된다. 방탄소년단은 부모와 교사, 선배 아이돌과 그들의 팬덤, 그리고 거대 기획사와 그 기획사가 장악한 방송계 등,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관문의 수호자들과 대결하며 새로운 장으로 진입해야 한다. 먼저 획일화와 서열화를 통해 청소년들을 규율하고 사회화하는 학교가 있다. 「No More Dream」에서는 “억압만 받던 니 삶의/ 주어가 되어” 보라고, 「N.O」에서는 “더는 남의 꿈에 간혀 살지 마”라고 청(소)년들을 응원하거나 “우릴 공부하는 기계로 만든 건 누구, 일등이 아니면 낙오로 구분 짓게 만든 건, 틀에 가둔 건 어른이란 걸 쉽게 수궁할 수밖에, 단순하게 생각해도 약육강식 아래 친한 친구도 밟고 올라서게 만든 게 누구라 생각해”(「N.O」)라며 기성세대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대중음악계는 경쟁을 통해 소수를 선발하는 생존 투쟁의 장으로서 초기의 방탄소년단이 최종 목적지로 삼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는 신인 아이돌 일반의 소수자성과 지리적 변방 출신이라는 주변성에 더해 방탄소년단을 더욱 가혹한 시련에 겪게 하는 것이 있다. 3대 거대 기획사가 장악하고 있던 아이돌 산업계에 영세한 중소기획사 소속의 방탄소년단은 ‘흙수저 아이돌’이라는 점, 이제까지 시도한 적 없던 ‘힙합 아이돌’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인 정체성은 아이돌과 힙합계 양쪽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

12) 데뷔 싱글 『2 COOL 4 SKOOL』(2013), 같은 해 9월 발표한 첫 번째 미니앨범 『O!RUL8,2?』과 두 번째 미니앨범 『Skool luv affair』(2014)를 말하며, 같은 해 발매된 첫 번째 정규 앨범 『Dark&Wild』(2014)도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다.

13) 2015년에 발매한 두 개의 미니앨범 『화양연화 pt.1』, 『화양연화 pt.2』, 그리고 청춘의 이야기를 마무리한 리패키지 앨범 『화양연화: Young Forever』(2016)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가 된다.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화양연화 연작에 이르러 확인할 수 있다. “어느새 나는 가족의 자랑이 됐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라는 「Never Mind」의 가사나, 연습생 시절의 좁고 열악했던 숙소를 떠나 보다 넓은 곳으로 이사 가는 소회를 노래한 「이사」가 그렇다. 새로운 세계로의 성공적인 진입은 “좋은 건 언제나 다 남들의 몫이었고 / 불투명한 미래 걱정에 항상 목쉬었고 / 연말 시상식 선배 가수들 보며 목메었”던 시련의 과정을 “꾸질한 기억”으로 재설정하며 더 높은 단계로의 비상을 다짐하는 계기가 된다.

초기 노래에 담긴 입문의 과정과 성공은 방탄소년단이 같은 시기 실제로 겪었던 시련 극복과 맞물려 ‘성장 서사’로 구축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성장 서사’가 자기계발 담론적 속성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니 꿈을 따라가 like breaker/ 무너진대도 oh 뒤로 달아나지마 never/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 먼 훗날에 넌 지금의 널 절대로 잊지 마/ 지금 니가 어디 서 있든 잠시 쉬어가는 것일 뿐/ 포기하지 마 알잖아 너무 멀어지진 마 tomorrow

- 「Tomorrow」에서

니가 지하에서 놀 때/ BTS 지상에서 노네/ 밤새 잠 퍼질러 잔 너에 비해/ I'm workerholic shopperholic/ 니 fan 보다 많은 pen

- 「Cypher pt.2」에서

자신의 꿈을 찾을 것, 어떠한 시련에도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그리고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자기계발 주체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덕목이라면, 위의 노래들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꿈꾸며 끊임없이 노력하여 당당히 세상의 중심에 진입한 전형적인 자기계발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방탄소년단의 초기 노래에서 타자가 언제나 경쟁자나 적대자로만 등장하고, 연대의 대상이나 조력자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이들의 입문 과정을 자기계발적인 성공 과정으로 읽을 여지를 준다. 신화적 영웅이 입문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얻기 마련인 초현실적인 힘, 혹은 조력자의 존재도 방탄소년단의 노래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자기 증명에의 투지로 시련을 이겨내었다고 노래한다. “나만치 해봤다면 돌을 던져”(「We are bulletproof pt.2」), “키보드로 힙합하는 놈들보다 백 배는 열심히 살지”(「Cypher 3」)나 “밤새 일했지 everyday, 니가 클럽에서 놀 때”(「떨어」), “앞만 보고 달렸지 주위를 둘러볼 틈 없이”(「Never Mind」)와 같은 가사는 다른 누구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노력이 새로운 세계의 안착을 현실화한 요인임을 말해주며,¹⁴⁾ “Oh my haters 좀 더 욕해줘/ 키보드위리어 노력해 줘/ 그래 그렇게 무시해줘/ 니가 틀렸단 걸 증명하는 게 취미예요”(「We on」), “나 보여줄게 칼을 갈아왔던 만큼/ 날 무시하던 많은 사람들”(「We are bulletproof pt.2」), “고작 그따위 말로 날 극딜해 봤자 난 더 강해져(…) 난 니들의 시기 질투를 먹고 자라는 불가사리”(「Cypher 3」)와 같은 가사는 이들을 향한 무시와 조롱, 그리고 혐오가 이러한 성공의 투지를 더욱 강하게 만든 요인임을 말해준다.

방탄소년단은 “십 대, 이십 대를 대신해 쉽게 우리 애길”하겠다는 다짐으로 자신들의 목표와 정체성을 선언하지만, 이때의 ‘우리’는 위계적 구별이 전제되어 있는 ‘우리’다. 이를테면,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No more dream」, 「N.O」 등에서 “암마 니 꿈은 뭐니/ 니 꿈은 겨우 그거니”나 “더는 남의 꿈에 간혀 살지마”라고 하는 조언은 청(소)년들을 위한

14) 홍보 전략의 차원에서 보자면, 트위터를 비롯하여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기획사에서 자체 제작한 풍부한 콘텐츠 등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연습생 때부터의 일상과 고민을 짧은 브이로그 형식으로 꾸준히 올리고 게임을 하며 자연스러운 모습을 자주 노출시킨 것은 팬과 아이돌 간의 간극을 줄임으로써 친숙함과 호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것이지만, 여기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여 시련을 이겨낸 자신들과 기성세대에게 순응하며 안주하는 청(소)년 일반에 대한 구분이 내포되어 있다. 노력과 열정을 강조하는 기성세대를 “노력 노력 타령 좀 그만둬/ 아 오그라들어 내 두 손발도”라며 조롱하면서도(「뱀새」) 사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자신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위계화의 기준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인 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미래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자기계발담론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다.

방탄소년단의 입문 과정이 보여주는 극적인 시련 극복의 과정, 선명한 대결 구도는 성장 서사가 갖는 보편적 영향력과 더불어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특히, 다른 케이팝 가수들과 달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노래로 표현한다는 점은 이러한 성장 서사에 진정성을 부여하고, 팬들로 하여금 방탄소년단과 동일시를 느끼게 함으로써 공고한 팬덤의 중핵으로서 기능하게 된다.¹⁵⁾ 그러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수동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의 주체로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이를 통해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그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조하는 자기계발 담론은¹⁶⁾ 사실상 신자유주의적인 개인의 통치 방식이기도 하다. 자유의지에 근거해 선택했다고 여기는 목표와 삶의 방향도 이미 주어진 틀 내부에 한정된 것에 불과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틀 없이는 삶의 주도권을 잃을 것이라는 공포에 개인은 잠식당한다. 자기계발 담론은 이런 식으로 개인을 통치가능한 주체(governable subject)로 주조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을 분할하고, 타인들과의 연결을 분쇄”함으로써 개인을 탈정치화하고 공적 영역을 소멸시킨다.¹⁷⁾

15) 윤지영, 「사회적 통합의 성장 서사와 닫힌 공동체로서의 팬덤: 방탄소년단의 초기 노래 가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3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

16)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17) 전상진, 「자기계발의 사회화-대체 우리는 자기계발 이외에 어떤 대안을 권유할 수 있

Ⅲ. 사랑의 궁지와 ‘Love Myself’를 통한 소명의 인식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관문의 통과는 입사자의 첫 번째 과업에 불과하다. 조셉 캠벨은 이 시련을 완수한 영웅에게 “승리한 영웅과 세계의 여왕인 여신과의 신비스러운 혼례”라는 새로운 도전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여신은 오랜 방황을 끝낸 영웅의 안식처이자 위안으로서 만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또한 선과 악이 통합된 존재로써 우주의 전체성을 상징하며,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영웅에게 여신은 유혹하는 여성으로 나타난다. 이 여신/유혹하는 여성에게서 우주적 진리를 읽어낼 수 있는 자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는 위압이나 잔꾀로는 불가능하다. 오로지 자비나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만 유혹자로서의 여성이 함축하고 있는 전체성, 삶 자체의 진리를 볼 수 있다.¹⁸⁾

새로운 세계의 안착에 이어 입지를 공고하게 만든 화양연화 3부작이 사랑에 관한 노래들이라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학교 3부작의 마지막 앨범 『Skool Luv Affair』(2014)과 『Dark&Wild』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이는 이성에 대한 청소년기의 호기심 차원에 머문다. 그러나 화양연화 연작에서 사랑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전면화되는 자아의 본질에 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화양연화 연작에서 시작하여, 『Wings』를 거쳐 ‘Love yourself’ 연작에 이르는 동안 방탄소년단이 노래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발견해 가는 과정을 매개한다.

사랑의 함의와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의 이러한 변화는 방탄소년단이 그들의 팬과 함께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함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세계로의 성공적인 입문이 새로운 시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화양연화 연작에서 노래하는 사랑은 이전 앨범에

는가, 『문화와사회』 5권, 2008, 가을/겨울호, 115~121쪽.

18) 조셉 캠벨, 위의 책, 144~157쪽.

나타난 호기롭고 설익은 구애의 감정과 달리 위태롭고 연약한 것으로 표현된다. 「I need you」나 「잡아줘」처럼 이별을 앞둔 상황을 다룬 노래나 「고엽」, 「House of card」처럼 실연을 다룬 노래만 그런 것은 아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순간에도 사랑은 환영처럼 잡히지 않고 아득하다.

두 불을 어루만지는 니 품처럼/ 한가로이 표류하는 먼지처럼/ 넌 거기 있지만
웬지 닿질 않아// Is it true? Is it true?/ You, you/ 너무 아름다워 두려워/
Untrue, untrue/ You, you, you// (...) / 손대면 날아갈까 부서질까/ 겁나, 겁나,
겁나/ 시간을 멈출래, 출래/ 이 순간이 지나면, 나면/ 없었던 일이 될까 널
않을까

- 「Butterfly」에서

추억들이 마른 꽃잎처럼 산산이 부서져 가/ 내 손끝에서 내 발밑에서 달
려가는 네 등 뒤로/ 마치 나비를 쫓듯 꿈속을 헤매듯 너의 흔적을 따라가/
길을 알려줘 날 좀 멈춰줘. 날 숨 쉬게 해줘

- 「Run」에서

여기에서 ‘너’는 여느 사랑 노래와 마찬가지로 화자에게 구원자로 인식된다. 그러나 ‘너’는 잡히지 않는 환영과 같고, 너와의 사랑은 달콤하지만 언젠가는 깨어날 “꿈”처럼 한시적이다. ‘나비’는 사랑의 이와 같이 유한하고 아름다운 속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모티프이자, 과업을 완수했다고 생각한 영웅에게 찾아온 새로운 난제인 여신을 상징한다.

이 연작 앨범의 제목인 ‘화양연화’는 사랑의 문제를 영원함과 유한함의 문제로 확장한다. 사랑이 나비를 쫓는 것처럼 금새 사라져버릴 환상이듯,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도 영원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이 끝나버릴지도 모를 불안감과 사랑의 영원함에 대한 욕망은 증폭된다. 이는 낭만적인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의 사랑이 존재의 목적인 아이돌에게 이 문제는

존재론적 질문이기도 하다. 청춘의 패기와 열정을 노래하던 방탄소년단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장해가던 시기에 사랑을 주제로 연작으로 발표한 것은 이 사랑을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얻어낸 팬들의 사랑으로 읽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지금 날 위로하네 완벽한 세상은 없다고 자신에게 말해 난/ 점점 날 비워
가네 언제까지 내 것일 순 없어 큰 박수갈채가/ 이런 내게 말을 해, 뽀뽀하
니 목소릴 높여 더 멀리/ 영원한 관객은 없대도 난 노래할 거야/ 오늘의 나
로 영원하고파, 영원히 소년이고 싶어

- 「Epilogue: Young forever」에서

화양연화 3부작 마지막 앨범에 수록된 위 곡은 무대를 마친 후의 복잡한 감정을 노래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어렵사리 획득한 명성과 사회적 인정이 영원할 수 없다는 자각이다. “화양연화”라는 연작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들은 현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 현재가 영원할 수 없음을 안다. 그들은 “영원한 관객은 없대도” 계속 노래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년’으로 영원히 머물기를 욕망한다.

그러나 이 꿈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사랑을 포함하여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보편적인 진리 때문이기도 하고, 그 꿈이 타자와 얽혀 있는 꿈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랑의 대상이 팬이든 연인이든, 이들이 갈구하는 사랑은 타자의 시선과 욕망에 기대서만 완성된다. 타자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은 자기계발적 노력이나 열정으로는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타자의 사랑을 영원히 받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 세상은 지옥이 되고, 사랑하는 상대는 나를 구속하는 주인이 된다. 말하자면, 그때의 연인은 더 이상 나를 구원하는 여신이 아니라 나를 파멸에 빠뜨리는 유혹자인 것이다. 사랑의 표면적인 아름다움 밑에 깊이 감춰진 악몽이 부상하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화양연화

연작에 이어 발표한 두 번째 정규앨범 『Wings』에서 노래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

『Wings』와 그 리패키지 앨범인 『We never walk alone』이 발표된 2016~17년은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세계 무대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한 때다. 그러나 『데미안』의 주제를 차용했다고 알려진 『Wings』에는 유혹과 금기로서의 사랑, 금기의 위반과 그에 따른 죄의식 등, 고통과 회한의 모티프들이 반복된다. 화양연화 시리즈에서 구원자·여신과의 꿈같은 사랑이 유혹자와의 파멸적인 사랑으로 전환된 것이다.

달콤함과 위험함이라는 사랑의 이중성은 앨범의 제목이자 핵심적인 모티프인 ‘날개’에 압축되어 있다. 먼저 이 앨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표제곡 「Outro: Wings」에서 ‘날개’는 어릴 적 소망하던 것으로서, 아픔 끝에 얻게 되었다고 제시된다. 초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소망이 개인의 부단한 노력만으로 성취된 것은 아니라는 자각이다. “너의 그 손이 내 날개가 돼”라는 「You never walk alone」의 가사는 날개가 타자의 지지를 통해 갖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조력자가 달아준 이 날개를 “악마의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사실이다.

내 피 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가/ 내 피 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가/ 내 피 땀 눈물// 내 피 땀 눈물도/ 내 몸 마음 영혼도/ 너의 것인 걸 잘 알고 있어/ 이걸 나를 벌 받게 할 주문// (...) // But 너의 날개는 악마의 것

- 「피, 땀, 눈물」에서

이 날개가 악마의 것인 이유는 이 날개를 달아준 조력자가 악마이기 때문이어서는 아니다. 날개를 얻는 데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며, 그 대가가 “피 땀 눈물”, “내 마지막 춤”, “내 차가운 숨”에 더해 “내 몸 마음 영혼”처럼 나의 정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자아 경계의 붕괴를 통한 타자와의 합일을 전제로 한다. 이를 악마와의 거래를 통

한 타락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아의 유지와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사랑을 자기 욕망의 충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을 경우다. 『Wings』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데, 사랑에 탐닉하는 것을, 자신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며 그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y meets evil』에서는 “이 사랑은 악마의 또 다른 이름”임을 알면서도 더 갈구하는 소년의 고통이, 『Stigma』와 『Lie』에서는 중독된 사랑에서 비롯된 고통에서 구원과 속죄를 갈구하는 모습이 표현된다. 말하자면, 이 앨범에서 사랑은 소망의 충족을 의미하면서도 자기 파멸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비롯한 욕망 충족에 내재한 쾌락과 자기 파멸의 위험성이라는 이중성은 여신/유혹하는 여성의 이중성에 상응한다. 앞서 말했듯, 이 이중성을 해결하는 것이 입문에 성공한 영웅이 해결해야 할 두 번째 과업이다. 이는 곧 자아와 타자, 선과 악, 쾌락과 고통처럼 이름과 경계 지어짐으로 구축된 현실 세계의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¹⁹⁾ 조셉 캠벨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유혹의 정체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왕비를 차지했을 때 오이디푸스가 맛보았던 순진한 기쁨이, 그 왕비의 정체를 알고부터는 정신적 고뇌로 바뀌고” 이것이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²⁰⁾ 자신이 도취한 쾌락의 본질을 안다면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제로 위의 곡에는 자신들이 빠져든 달콤함이 “악마”, “독”, “지옥”을 담고 있다는 자각을 보이며,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갈구한다. 그런 점에서 이어지는 ‘Love Yourself’ 3부작(2017~2018)은 방탄소년단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과업을 해결하는 서사로 읽을 수 있다.

‘승(承)-Her’, ‘전(轉)-Tear’, ‘결(結)-Answer’이라는 부제가 붙은 총 3개의 ‘Love Yourself’ 앨범들은 일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

19) 조셉 캠벨, 앞의 책, 178쪽.

20) 위의 책, 161쪽.

건들을 중심으로 사랑에 관해 이야기한다. 각 앨범의 테마 곡들은 사랑에 빠지는 단계, 관계에 균열이 가며 위기와 갈등이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결별 이후, 관계를 성찰하는 단계를 노래한다. 그 가운데 「Her: Outro」와 「Fake love」, 「전하지 못한 진심」은 이별에 처한 화자의 독백을 통해 『Wings』에서 전면화된 사랑이 자기파멸적인 원인을 탐구한다. 그것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는 것인데, 『Wings』에서 ‘악마와의 거래’로 표현되었던 신화적 모티프르 일상적인 사랑의 장면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낯설다 하네 니가 좋아하던 나로 변한 내가 / 아니라 하네 예전에 니가
 잘 알고 있던 내가 / 아니긴 뭐가 아냐 난 눈 멀었어 / 사랑은 뭐가 사랑 it's
 all fake love //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why / 나도 날 나도
 날 모르겠어 / I just know, I just know, I just know why / 'Cause its all fake
 love, fake love, fake love

- 「Fake love」에서

나는 너의 진실이자 거짓일지 몰라/ 어쩌면 당신의 사랑이자 증오/ 어쩌면
 나는 너의 원수이자 벗/ 당신의 천국이자 지옥 때론 자랑이자 수모

- 「Outro: Her」

사랑받기 위해, 혹은 상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은 자기기만과 자기 부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그 결과 자아 상실에 이른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상대가 나의 구원이자, 빛,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너의 그 손이 내 날개가 돼”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구원자인 여신이 나를 파멸하는 유혹자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욕망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곡들이 보여주는 자신의 사랑이 가짜라는 사실(fake

love’)과 자기 상실에 대해 인식은 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여정에 들어섰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Outro: Her」에서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사랑과 증오처럼 일상적 세계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동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라든지, 인어공주처럼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버렸지만, “봄이 와/ 얼음들은 녹아내려 흘러가”면 얼음 호수에 버렸던 자신의 목소리와 대면하게 되리라는 예측(「Singularity」)은 ‘Love Yourself’의 마지막 앨범에 수록된 「Epiphany」에서 현실화된다. ‘현현’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의 이 곡에서 이별의 실의에 빠져 있던 화자는 사랑을 위해 억압하고 외면했던 자신을 “빛나는 나”, “소중한 내 영혼”,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대면하게 된다. 『Wings』에서는 사랑의 자기 파멸적 위험성과 그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는 것에 그쳤다면, ‘Love Yourself’ 연작에서는 이 궁지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 구원의 열쇠는 바로 「Epiphany」를 비롯해 이 연작의 마지막 앨범에 수록된 「Answer: Love myself」, 「Magic shop」 등을 관통하는 “Love Myself”다. 연작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이자, 유니세프와 함께 벌인 캠페인의 슬로건이기도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²¹⁾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Love Myself”는 자아도취적인 나르시시즘과는 거리가 멀다.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니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니 삶 속의 굶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 너이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버리기엔/ 우리 인생은 길어 미로 속에선 날 믿어/ 겨울이 지나면

21) 2018년도, 유엔에서의 연설이 “Love Yourself”에서 더 나아가 “Speak Yourself”라는 메시지로 마무리 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love yourself”라는 메시지는 2017년 5월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공식 초청받아 K-Pop 그룹 최초로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 이미 표방되었다. 이때 수상소감으로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저희가 한 말을 잊지 마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제목을 통해 ‘Love Myself’가 이 탐색의 최종 해답임을 보여주는 위의 곡에서 타인과의 사랑은 자기 자신과의 사랑이라는 문제로 다시 설정되고, 사랑은 “차가운 밤의 시선”, 즉 타인에 의한 응시라는 보편적인 문제로 확장된다. “초라한 날 감추려/ 몹시 뒤척”이고, “거울 속 너/ 겁먹은 눈빛”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한 결과다. 내면화된 타자의 시선은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얻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율적으로 통치하게 만든다.

자기를 스스로 노예화하는 이 시선-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는 타자의 시선을 통해 평가하고 부정했던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셉 캠벨식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와의 화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자식이 더 넓은 세계로 나갈 때 마땅히 거쳐 가야 하는 통과제의의 사제이자 비법 전수자이며 계를 관장하는 대타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과 시선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 아버지의 명령과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만이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 점에서 “Love Myself”는 아버지의 시선과 인정 없이도 나 스스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응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개성적인 자아나 들뢰즈가 구분한 특수성으로서의 자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아는 차이가 아니라 구별에 의해 구축되는 사회적 구성물로서 개인을 영토화한 결과다. 오히려 조셉 캠벨은 아버지화 된 영웅을 자기 인간성을 모두 박탈당하고, 비개인적인 우주적 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본다.²²⁾

22) 위의 책, 178쪽.

“You can call me artist / You can call me idol / 아님 어떤 다른 / 뭐라 해도 I don’t care”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Idol』은 방탄소년단이 “Love Myself”를 통해 이 영토로부터 탈주선을 그리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자신의 노래를 직접 작사·작곡하고 노래하는 아티스트(힙합 가수)를 꿈꿨지만, 아이돌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공장식 상품”으로 폄하되는 것에 대한 오랜 갈등이 “Love myself”를 통해 타인의 시선과 명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심지어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된 것이다(“I’m proud of it”).

IV. ‘영혼의 지도’ 그리기와 ‘영웅-되기’

2019~20년에 발표한 “Map of the Soul”연작은 앞선 시기에 천착했던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랑의 문제를 통해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을 보다 확장하며 정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기할 것은 이 정식화를 위한 틀로 융의 에고 심리학을 원용한다는 점이다. 연작의 제목을 융의 저서에서 따왔다는 점, 퍼소나, 그림자, 에고 같은 융의 핵심 개념을 연작의 뼈대가 되는 처음, 중간, 마무리 곡의 주제로 삼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융의 이론적 틀은 『Wings』에서부터 “Love Yourself” 연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서사를 전개하며 해답을 발견하는 과정을 종합하고 개념화한다. 이를테면, 『Intro: Persona』은 “Love Yourself” 연작에서 진짜 자신과 그것을 가리는 가면 사이의 갈등을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정식화한다.

내가 되고 싶은 나/ 사람들이 원하는 나/ 니가 사랑하는 나/ 또 내가 빚어
내는 나/ 웃고 있는 나/ 가끔은 울고 있는 나/ 지금도 매분 매 순간 살아 숨
쉬는/ Persona (yeah)

- 『Intro: Persona』에서

그래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이젠 알겠니/ 그래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젠 알겠지/ 우린 한 몸이고 또 때론 부딪히겠지/ 너는 절대 나를 떼어낼 수 없어 알겠지/ Yeah yeah 떼어낼 수 없어 네가 뭐를 하던지/ Yeah 인정하는 게 더 편안하겠지/ Yeah 성공 혹은 실패 어디 있던지/ Yeah 도망칠 수 없어 어디 가던지/ Yeah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알겠니

- 「Inerlude: Shadow」에서

“Love Yourself” 연작에서 진짜 자신을 가리는 가짜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가면(persona)은 여기에서 나의 일부로 수용된다. 우리가 다양한 가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퍼소나는 이 복수의 ‘나’를 지칭하는 기표일 뿐이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단 하나의 단일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복수의 가면들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나이며, 앨범의 제목이기도 한 용의 “영혼의 지도”를 구성하는 일부다.

퍼소나와 함께 “영혼의 지도”를 구성하는 또 다른 부분은 그림자다. 빛이 강할수록, 높이 오를수록 만천하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림자는 『Wings』와 “Love Yourself” 연작에서 가면 뒤에 숨긴 부끄러운 자신, 얼음 호수에 던져버린 목소리의 변주다. 그러나 위의 곡에서 그림자 역시 ‘가면’과 자신의 일부로 수용한다.

그러나 “Map of the Soul” 연작이 “Love Yourself” 연작의 주제를 변주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 시기의 노래에는 도주에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정상에 올라 대면한 “가장 밑바닥의 나”, 즉, 그림자와 “내 그림자는 되려 더 커져 나를 삼켜 괴물이 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도약은 추락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Map of the Soul” 연작을 발매한 시기는 이미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다음으로, 방탄소년단은 여러 인터뷰에서 이 정도의 성공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두렵다는 고백을 한 바 있다. 도주에 대한 욕망은 이 연작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적으로 빈번하게 토로된

다. 「Louder than Bombs」의 “너를 외면했던 시간/ 자꾸 도망쳤던 나날”,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높아버린 sky, 커져 버린 hall/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Jamais Vu」의 “내 노래 가사, 몸짓 하나/ 말 한마디 다 내 미시감에 무서워지고/ 또 늘 도망가려 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조셉 캠벨도 임무를 완수한 영웅에게 이와 같은 도주의 욕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영웅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련은 “생을 역전시키는 전리품을 가지고 귀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영웅이 이 책임을 회피한 채 이계에 눌러 앉거나 귀환을 저지당하기도 한다. 신화에서는 현실세계로의 귀환이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지만, 방탄소년단의 곡에서는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던 최초의 순간을 상기함으로써 도주에의 유혹을 이겨낸다. 이를테면, 「Interlude: Shadow」에서는 도주에의 욕망과 함께 “I wanna be a rap star/ I wanna be the top/ I wanna be a rockstar/ I want it all mine/ I wanna be rich/ I wanna be the king/ I wanna go win”와 같이 출발선에서 꾸었던 꿈이 소환된다. 「Intro: Persona」에서도 “그냥 들어주는 누가 있단 게 막 좋았던” 출발선에서의 마음이 등장한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했던 초심은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지금과 대비되어, 「Interlude: Shadow」에서는 그림자가 그 성취의 대가임을 수용하고, 「Intro: Persona」에서는 퍼소나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노래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게 한다.

「Outro: Ego」에서도 마찬가지다. 화자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던 과거를 떠올리며, 만약 그때 이 길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한다.²³⁾ 이러한 또 다른 과거에 대한 가정은 현재의 삶이 자기 선택의 결과임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해왔던 것들을 “악마의 손

23) 실제로 이 노래의 작사를 하고 부른 J-hope은 연습생 시절 데뷔를 포기하고 귀향한 일이 있다. J-hope뿐 아니라 RM, 슈가 등, 힙합 그룹을 꿈꾸며 그룹에 들어왔던 멤버들은 아이돌로 데뷔하게 되는 상황의 변화와 그에 따른 고난위의 댄스 연습 등에 희의를 느껴 포기하려는 생각을 했다.

길과 운명의 recall”이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은 그 선택들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며, 현재의 성공이 주체적인 노력에 따른 인과적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물론 노력과 열정이 그들을 새로운 세계에 안착시키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노력과 열정이 언제나 소망 성취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선택이 거둔 성과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재연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이었다는 자각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주의 유혹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전진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을 때 말하는 전진은 데뷔 초 그들이 선언하던 전진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전부 내 운명의 선택 so we're here/ 내 앞을 봐 the way is shinin' (shine)/
Keep goin' now (ready set and begin) // 그 길로, 길로, 길로/ Wherever my
way/ 오직 ego, ego, ego/ Just trust myself// 믿는 대로 가는 대로 (그 길로, 길
로, 길로)/ 운명이 됐고 중심이 됐어 (wherever my way)/ 힘든 대로 또 슬픈
대로 (오직 ego, ego, ego)/ 위로가 됐고, 날 알게 해줬어 (just trust myself)//
Map of the soul/ Map of the all/ That's my ego

- 「Outro: Ego」에서

데뷔 초의 전진이 정상을 향한 수직 상승, 세상의 질서 속에서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여기에서 전진은 그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계속해서 나아갈 뿐이다. 그 길이 어디든 계속 가겠다는 것은 어떤 길을 가든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믿는 것이 있다면 오직 자기 자신이다. 결과를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혹은 결과에 무관하게 그저 서 있는 그 자리의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노래하며 사후적으로 발생한 일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선택과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슬픔이 자기를 알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깨달음이다. 말하자면, 이들의 전진은 세속적 성공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영혼의 지도’는 현실의 모사나 축도처럼 고정된 것, 확정된 것이 아니다. 피소나와 그림자, 그리고 에고를 위상학적으로 표현한 도표도 아니다. 그보다는 현실과 끊임없이 조응하며 선택한 결과들로 수정되고 변형되는 지도다. 들뢰즈의 ‘지도제작(cartographie)’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의미를 담기에 적절하다. 즉, ‘영혼의 지도’라는 용어는 용으로부터 빌려온 것이지만, 고유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자아 혹은 개인(individual)의 정신 세계를 투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내적 역동성,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강도(intensity)로서의 특이성(singularité)이 다른 것들과 접촉함으로써 언제나 생성을 이어가는 흐름에 더 가깝다. 고통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와 함께 흔들리며 “까만 바람과 함께 날아”가겠다고 노래하는 「On」은 바로 이러한 생성의 흐름에 올라타는 의미로서의 전진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도 나를 억누를 수 없어. 왜냐하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전사니까(I can’t hold me down ‘cause you know I’m a fighter)’라고 하는 선언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이 비상은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의 비상이 아니라 자신도 억누를 수 없는 전사의 힘, 즉 강도에 의한 비행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영웅은 생성된 것의 투사가 아니라, 생성되는 것의 투사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조셉 캠벨의 영웅에 대한 정의도 생성하고 창조하는 영웅의 힘을 강조한다.²⁴⁾²⁵⁾

이 힘-강도는 기본적으로 코나투스, 즉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망이지만, “Map of the Soul” 연작에서는 노래에 대한 욕망이며, 타자에 가닿는 것으로 특화된다. 「Intro: Persona」에서 계속해서 날아갈 것을 다짐하며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voices till I die (yeah)/ I just wanna give you all the shoulders when you cry”라고 말하는 것이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서 “니가 준 이카루스의 날개로 /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24) 조셉 캠벨, 위의 책, 313쪽.

25) 위의 책, 253쪽.

날아가겠다고 할 때, 이 욕망은 언제나 타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데뷔 초처럼 이끌거나, ‘Love Yourself’ 시기처럼 인정을 받아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해주는 존재로서의 타자가 아니다. 노래라는 흐름으로 접속하고 연결되는 대상으로서의 타자, 더 정확히 표현해서 또 다른 특이성으로서의 타자다. 자신의 전리품을 “사회, 국가, 그 천체, 아니면 일만 세계를 재생시키는 데 환원”하려면²⁶⁾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야 하는 영웅처럼, 방탄소년단은 정상을 향한 수직 상승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 너에게 가닿는 수평의 비행을 하려는 것이다.

조셉 캠벨은 귀환의 거부, 이계에서의 안주를 “개성화 상실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업의 최종적인 완수는 이승과 저승이 사실은 하나의 세계라는 사실, 지금까지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하던 타자와 자아를 동화시키는 동시에 자아를 사라져버리게 한다. 자격 미달인 개인에게 이러한 진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다. 오직 영웅에 값하는 인간만이 담대하게 이 경험을 감당하고 이를 통해 쟁취한 전리품을 갖고 현실 세계로 귀환할 수 있다.²⁷⁾ ‘Love Yourself’ 연작 후반에 자신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든 예술가라고 부르든 소시민적 영웅인 만화 캐릭터 “앙팡맨”처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말했을 때, 방탄소년단에게 사적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미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고, 이러한 인식은 “Map of the Soul” 연작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변주된다.

「Dionysus」에서는 스스로를 광기와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와 동일시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아이돌이든 예술가이든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고, 「Filter」에서는 원하는 대로 “뭐든 돼 줄게/ 날 골라 쓰면 돼”라고

26) 이러한 인식은 「Jamais Vu」나 「Louder than Bombs」에서도 반복된다. “(관들 거냐고? No, no never) / I won't give up”이라고 마음을 다잡고, “너를 외면했던 시간/ 자꾸 도망쳤던 나날 이제 더는 없어”라고 약속하는 것은 “집중해서 꼭 네게 닿고 말겠어”, “우린 끝없이 널 향해 노래할 거라고”라는 가사가 말해주듯, “너”와의 연결을 위한 뻔어나감이다.

27) 위의 책, 281쪽.

말하며 가면 쓰기를 유희한다. 자신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집이라는 「Home」의 메시지도 유사하다. 집은 이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다. 데뷔 초처럼 금의환향할 고향, 성공적 통합의 상징도 아니다. 특이성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 “나의 집”이다. 들뢰즈 식으로 말하면, 장소의 특수성, 개체의 특수성에서 놓여나 생명과 강도의 접촉을 통한 배치로, 조셉 캠벨 식으로 말하면, 우주적 에너지의 분유라는 점에서 차이와 구별이 무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Love Yourself’ 연작 후반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Speak Yourself”)와 별자리 모티프는 욕망과 욕망, 강도와 강도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배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ap of the Soul” 앨범에서 다시 강조되는 이들 모티프는 “I do believe your galaxy/ 듣고 싶어 너의 멜로디/ 너의 은하수의 별들은 너의 하늘을 과연 어떻게 수놓을지”(「Magic Shop」), “Tell me your every story”(「We are Bulletproof: the Eternal」), “모든 게 궁금해 how’s your day/ Oh tell me/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Oh text me(「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의 가사가 보여주듯, 타자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하고 있다. 성공이나 정상처럼 위대하고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의 breathe”가 “어둠 속 내 산소와 빛 (ah huh)/ 내가 나이게 하는 것들의 힘”(「On」), 즉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강도-특이성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법에 따를 때 이 “작은 것들”은 무력하고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생명-강도의 차원에서 보자면 “작은 것들”은 저마다 고유하며 강력하다. 별의 이미지는 이 “작은 것들”의 생성하고 접촉하는 특이성에 대한 물질적 보조물이다.

한 사람에 하나의 역사 / 한 사람에 하나의 별 /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 70억 가지의 world// 70억 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찌면 또 다른 도시

의 밤/ 각자만의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One/. (...)// 어쩔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또 아름다운 건/ Oh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
일 거야

- 「소우주」에서

우리는 모두 이 우주에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별과 같다. 별이 내부에서 핵융합 작용을 통해 빛을 낸다면 저마다의 역사와 생명 그 자체가 빛을 낸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빛을 드러내는 일이며, 서로 접속하는 방법이다. “So show me (I’ll show you)”(「Magic Shop」), 즉, 서로를 드러내 보이는 일은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꺾/ I got you 칠흑 같던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라는 가사가 말해주듯, 어둠 속에 단독자라고 느끼는 서로에게까지 가 닿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서로를 통해 반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타자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타자를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복수의 특이성들이 함께 생성해나가는 방법은 이처럼 고유한 ‘작은 것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를 들어주는 것이다. 별자리가 별과 별의 연결로 그려지듯, “영혼의 지도”도 혼자 그릴 수 있는 지도가 아니며 어떤 별과 별을 잇느냐에 따라 별자리가 매번 새롭게 그려질 수 있듯, “영혼의 지도”도 매번 경계와 영역이 변경될 수 있다. 그 지도는 “너라는 지도”(「Make it right」), “잡은 두 손이” 함께 만드는 지도(「Love Maze」)다. 출구가 없어 자꾸 길을 잃는 미로 속에서 길을 찾는 법은 정해진 길,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강도들을 발산하며 접속하고 생성하는 것이다.

V. 결론

2020년 코로나 19는 방탄소년단을 또 한 번 새로운 길로 이끈다. 이들

은 데뷔 7주년을 기념하며 야심차게 준비한 “Map of the Soul” 월드 투어를 끝으로 군입대를 계획한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이 계획은 무산되고, 대신 일곱 번째 미니앨범 『Be』와 영어곡인 「Dynamite」(2021), 「Butter」(2022), 「Permission to Dance」(2022) 등을 발표한다. 이 앨범들로 방탄소년단은 케이팝 역사는 물론 미국 빌보드 차트의 역사까지 새로 쓰는 성공을 거둔다.²⁸⁾

이러한 성공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는데, 팬데믹 시기의 일상을 노래한 『Be』는 사회적 발언이나 내면의 탐색 같은 진지한 주제를 다루지 않으며, 대중적인 팝 성향의 멜로디에 영어 가사로 구성된 「Dynamite」와 「Butter」, 「Permission to Dance」는 그래미, 빌보드 등을 수상하기 위해 영미권의 주류에 영합했다는 이유다. 공통적으로 방탄소년단이 그들 고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문제 삼는다.

방탄소년단이 힙합 아이들을 표방하며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노래하고, 강력한 춤과 퍼포먼스를 곁들인 진지한 주제들을 다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탄소년단은 계속해서 변화해왔고, 이러한 변화는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성장은 물론 시기별로 대면한 상황들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결과다. 이를테면, 데뷔 초에는 대중음악계로 대표되는 기성 사회에 진입하는 과업을, 이들이 무사히 케이팝 세계에 진입한 이후에는 기대보다 훨씬 높이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찾아온 정체성과 내면의 혼란을 이해하는 과업을 수행해온 것이다. 그리고 “Map of the Soul” 연작은 이러한 자신들의 행보를 “영혼의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으로 정리하면서 자신들의 소명을 재확인한다. 팬데믹 이후 방탄소년단이 걸은 길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노래를 하겠다는 욕망-강도로 누구도 예기

28) 2021년도에 발표한 「Butter」와 「Permission to dance」는 연말아 빌보드의 핫100 차트에 11주 연속 랭크되면서, 그룹으로는 최다 1위, 솔로 가수를 합하면 통산 네 번째로 오래 1위에 머무는 기록을 낳는다. “BTS ‘빌보드 아티스트’ 20번째 접수”, 《세계일보》, 2021. 08. 26., (검색일 2021, 9, 18)

치 못한 팬데믹 상황과 접속해서 코로나가 초래한 자신들의 일상을 노래하고, 코로나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노래를 전한 것이다. 자신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수행은 「Idol」에서 노래했듯 “오늘 또 다른 날 맞이”하며 전진하겠다는 다짐의 실천이기도 하다.

영웅이란 비교불가능한 힘을 가졌거나 지위와 명성에서 탁월함을 증명한 사람이 아니다. 모험을 통해 “알려질 수 있는 것들의 전체성을 표상”하는 여신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세계와 개인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 삶과 죽음, 인간과 자연, 개인과 개인이 거대한 우주적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를 자신이 원래 속했던 세계로 돌아와 드러내는 자다. 방탄소년단의 노래에서 새로운 세계로 떠나 모험을 수행하고 과업을 성취하는 영웅 신화를 읽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부단히 노력하여 성취하는 자기계발식의 성공담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성취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혹은 신자유주의의 자기계발에 성공한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 주체에서 강도-특이성, 즉, 비개인적인 우주적 힘을 대표하는 자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 가깝다.²⁹⁾ 이러한 의미의 성공 혹은 성장은 개인을 은밀하게 통치하고 규율하는 자기계발 서사의 성공과 성장을 넘어 타자와 더불어 자유로운 성공/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9) 조셉 캠벨, 위의 책, 178쪽.

참고문헌

- 민경원, 「BTS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 구축전략」,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 서동진,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2009.
- 윤지영, 「사회적 통합의 성장 서사와 닫힌 공동체로서의 팬덤: 방탄소년단의 초기 노래 가사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제63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 213-233쪽.
- 이재원, 「소셜 미디어 사회연결성의 팬덤 공동체 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방탄소년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한국콘텐츠학회, 2021, 1-12쪽.
- 이지영, 『BTS 예술혁명: 방탄소년단과 들뢰즈가 만나다』, 파레시아, 2020.
- 이지행, 『BTS와 아미컬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 전상진, 「자기계발의 사회학-대체 우리는 자기계발 이외에 어떤 대안을 권유할 수 있는가」, 『문화와 사회』 제5권, 2008, 103-140쪽.
- 최서원, 「3세대 K-Pop 아이돌 전략 분석: Exo, 트와이스, BTS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 홍석경, 『BTS 길 위에서』, 어크로스, 2020.
- 제임스 윌리엄스,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해설과 비판』, 신지영 역, 라움, 2010, 106쪽.
- 조셉 캠벨,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윤기 역, 민음사, 1999, 13쪽.
- 존 라이크만, 『들뢰즈 커넥션』, 김재인 역, 현실문화, 2005, 104쪽.
- 「BTS ‘빌보드 아티스트’ 20번째 접수」, 『세계일보』, 2021. 08. 26. (검색일 2023, 6, 30)
- 「방탄소년단 화양연화 pt.2 빌보드 앨범과 노래 부문 동시에 이름 올려」, 『부산일보』, 2016. 1. 6. (검색일 2023, 6, 30)

The Meaning of Growth in BTS' Songs: From the Success of a Self-developmental Subject to the Creation of a De-subject

Youn, Ji-Young

The process of BTS rising to the top of the world, which started off as hip-hop idols, is often consumed as a typical self-development success story. However, if you read the lyrics of BTS' songs in the order of their release, you can see that their growth has a much richer meaning. Although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three-step of Joseph Campbell's monomyth, which can be said to be the prototype of a self-development success story, the process of their transformation cannot be reduced a self-development narrative that reaches social success through choice based on free will and constant effort. Rather, it is more like a creation that 'becomes' from an individual subject with free will to an intensity-singularity representing an impersonal cosmic force in response to their age and the situation they face. For example, if the school trilogy released at the beginning of their debut carried out the task of entering the established society represented by the popular music world, after safely entering the world of K-pop, gaining popularity at a much higher rate than expected, carries out the task of understanding identity and inner confusion through the subject of love. The "Map of the Soul" series reaffirms their calling as a 'song-intensity' through creating "the map of the soul" by connecting with other singularities and constantly drawing a line of flight. Understanding the growth narrative of BTS as a line of flight will be to seek an alternative to the success discourse in the era of neoliberalism that regulates individuals, and which will have an important ripple effect considering BTS' global popularity.

Keywords : BTS, Growth story, Self-development discourse, Joseph Campbell, Monomyth,
Intensity, Singularity, Hero

투고일: 2023. 07. 04./ 심사일: 2023. 08. 13./ 심사완료일: 2023. 08. 14.